



새해맞이 불빛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앞 광장이 27일(현지시각) 다가오는 새해와 그리스정교회 성탄절(1월 7일)을 축하하기 위한 불빛 장식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다. /연합뉴스

# 이라크군, 7개월만에 IS 요충지 라마디 탈환

## 시아파 민병대 제외 첫 단독 작전

## 연합군 지원 탄력 받을 듯

## 이라크 정부 "다음 목표는 모술"

이라크 정부군이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한 안바르 주(州)의 주도(州都) 라마디를 사실상 탈환했다.

IS의 기습으로 이라크 정부군이 5월17일 라마디에서 퇴각한 지 7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이라크 정부군이 시아파 민병대의 도움 없이 거둔 첫 승리여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합 작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마 알누마니 이라크군 대변인은 27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IS 근거지인 옛 정부청사 단지에서 IS를 몰아냈다"며 "정부청사 단지를 통제한다는 것은 IS가 라마디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지난 22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라마디 탈환 작전을 개시한 지 5개월 만인 26일부터 이틀간 정부청사 단지를 둘러싸고 맹공을 벌였다.

IS는 주로 여성 주민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워 정부청사 단지에서 전원 퇴각한 상태지만 이들이 정사 곳곳에 설치한 폭발물 탓에 정부군이 아직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알누마니 대변인은 AFP에 "다에서(IS)의 아랍어 표기)가 모두 떠났고 이제 저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지

만 이틀간의 정부청사 공방전으로 최소 5명의 정부군과 IS 병력 수십 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라마디 정부청사 탈환 소식에 바그다드를 포함한 이라크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춤을 추고 국기를 흔들며 승리를 자축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라크군이 라마디를 완전 장악하면 이는 이라크군이 단독 작전을 통해 IS로부터 주요 도시를 되찾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작전에는 그간 IS 격퇴전의 주축이었던 시아파 민병대가 종파 간 보복 우려로 제외돼 사실상 이라크군의 첫 단독 작전으로 볼 수 있다.

IS 공습을 주도하는 미국은 지상전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대신 이라크군 육성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그동안 이라크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제공한 군용차량과 각종 병기를 IS의 손에 넘

겨준 채 도망간 사례가 잦았으나 이번 승리로 이라크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당히 줄게 됐다.

또 수니파가 다수인 이라크 최대 주(州)인 안바르의 주도이자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불과 100km 떨어져 시리아와 바그다드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디를 탈환함으로써 IS와 전쟁에서 본격적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라크 정부는 IS의 이라크 내 최대 거점인 북부 모술을 다음 공격 목표로 삼아 IS 격퇴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작전을 지휘하는 이스마일 알마를라위 이라크군 사령관은 이날 AP통신에 "IS의 자살폭탄과 저격수 때문에 이라크군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청사 단지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성차별 낙인' 트럼프, 빌 클린턴 공격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성차별 애호가라는 낙인이 찍힌 뒤 분위가 풀리지 않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향해 클린턴 후보가 사용한 그대도 성차별 애호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다.

트럼프는 26일 밤 트위터에 글을 올려 "힐러리가 자신의 남편을 선거유세에 참여시킨다고 발표했지만 그는 성차별 애호가임을 드러내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을 교묘히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로서는 지난주 미시간 주 유세에서 비속어를 써가며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면서 촉발된 성차별 논란의 조짐을 흐리면서 클린턴 선거캠프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르윈스키 성추문을 끄집어내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두 후보가 이처럼 열띤 공방전을 주고받으면서 정작 양당 자체의 경선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영화 '스타워즈' 12일 만에 1조 벌었다

영화 흥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가 최단기간에 10억 달러(약 1조 1700억 원)의 흥행 수입을 올린 영화가 됐다.

이 영화 배급사인 월트디즈니는 2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스타워즈가 개봉 12일 만에 북미에서 5억 4500만 달러(약 6380억 원), 그 외 지역에서 5억 4천 600만 달러(약 6390억 원)의 티켓 판매 매출을 올려 최단기간 1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전 기록은 지난 6월 개봉한 '쥬라기

월드'가 세운 13일이다. 쥬라기월드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인 중국에서 거둔 수입까지 더해 13일이 걸렸지만, 스타워즈는 중국에서 개봉하지 않은 채 12일 만에 신기록을 세웠다.

스타워즈는 내년 1월 9일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어 계속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각국 박스오피스를 점령한 스타워즈는 개봉 첫 주말 전 세계 매출을 올려 최단기간 1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18 황제 무제

무제(武帝·BC 156-BC 87)는 한왕조 제7대 황제로 본명은 유철. 55년간 황제로 있으면서 전한 왕조의 융성을 이끌었다. 그가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내 여자들의 알력 때문이었다.

무제의 부친인 경제는 처음에 율희라는 후궁이 낳은 유영을 황태자로 삼았다. 경제의 누이 장공주가 자신의 딸을 황태자 영과 결혼시키려 했다.

그런데 율희는 장공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다. 화가 치민 장공주는 또 다른 후궁인 왕부인과 짜고 율희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왕부인이 낳은 유철이 대신 황태자에 임명되었다.

무제는 16세때 즉위했다. 즉위 초기에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버티고 있어 소신껏 개혁정치를 펼 수 없었다. 특히 할머니 두태후는 유가의 학문을 싫어했다. 그는 의욕적인 황제였다. 전국 각지에서 현량방정하고 직언극간

싸움에 이겨 흉노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러나 광가병은 불과 2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무제가 가장 사랑한 신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무제 즉위 25년째 해였다.

장건이아말로 무제의 서역 경영의 뜻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산시성 한중 출신으로 무제의 명을 받들어 13년간 흉노국, 대월지국, 대하국에 체류하면서 엄청난 서역 정보를 갖고 귀국하였다.

무제는 다시 천축에 파견하여 교류를 트게 하였다. 중국의 서남 지방이 개척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도, 육 등진귀한 재물이 수입되었다. 무제가 탐을 낸 대완국의 명마인 한혈마(汗血馬)가 수입된 것도 이때였다. 이 당시에 확보된 중국 영토가 오늘날 중국인 영토 관념의 기초가 되었다.

무제 후반은 지나친 대외 정벌로 국고가 고갈되는 힘든 시기였다. 낙양 출신의 경제관료 상홍양이 대대적인 경제개혁의 정책을 맡았다. BC 119년

## '태학' 세워 인재 등용...유교 체제 확립

할 수 있는 선비를 추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태후가 세상을 떠나자 본격적으로 유교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재임기간 내내 인재추천령을 자주 반복하였다.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학을 국가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였다.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능한 인재를 교육시켜 관리로 발탁했다. 효령(孝廉) 제도를 실시해 효심있고 청렴한 인물을 천거받았다.

문제와 경제의 재정절감에 힘입어 황제에 취임했을 때 국고가 넘쳐났다. 대장군 위청과 광가병이 대외 정복전쟁의 주역이었다. 위청은 황후인 위자부의 남동생이었고 광가병은 조카였다.

오래 세월 두통거리였던 북방의 흉노에 대한 정벌이 나갔다. BC 129년 위청은 상곡에서 출격하여 융성까지 쳐들어가 승리를 거두었다. 건국 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성을 넘어 그 이북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후 오르도스 지방을 회복했고 감숙성에 출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그는 일곱 번 원정에 나가 흉노군과 싸웠다. 후반기의 대 흉노 전쟁은 광가병이 주도했다. BC 121년에는 세 번이나 출병했다. 이후 4년간 여러 차례

철과 소금의 전매제가 도입되었다. 군수법과 평균법을 만들어 대상인의 폭리를 막는데 노력하였다.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수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도 발행하였다.

치세가 말년에 접어들어 각종 무고가 성행하였다. 사실을 왜곡하는 투서와 진정으로 많은 중신들이 피해를 입었다. 재상의 절반 이상이 처형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암울해졌다. 황태자 유가 강종의 무고로 희생된 것이 가장 극적인 예다.

역사학자 왕리현에 따르면 그는 여섯가지를 새롭게 확립한 황제였다.

첫째로 유가사상을 국가의 통치사상으로 삼았다. 둘째로 교육기관인 태학의 설립으로 인재를 양성했다. 셋째로 중국의 판도를 크게 확장했다. 넷째로 서역과의 교통로를 개척했다.

다섯째 황제의 연호와 기원을 사용했다. 여섯째 황제 최초로 자아비판을 했다. 한서를 저술한 후한의 반고는 그를 올제대대의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 요지카와 고지로 교도대 교수는 무제의 시대를 "나무도 위풍당당한, 지극히 시골벽적 했던 시기"로 정의했다. 그는 황제 독재 체제의 완성자였다. 장천이 반, 비난이 반인 개성있는 황제였다.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라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열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